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3월 1일(주일) 제1038호

오늘은 96주년 3·1절



조선의 독립의사 만방에 알린 민족적 사건

그 위대한 3. 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순교,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기독교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당시 기독교가, 교회가,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3. 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만큼 3. 1운동에 있어 기독교의 공헌이 컸다. 오늘, 3. 1운동의 정신을 기리자.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자. 너나 할 것 없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태극기를 달자. **(관련기사 4-5면)**

오늘은 3. 1절이다. 광복 70주년에 맞이하는 3. 1절이라 더 뜻 깊다.

3. 1운동은 일제의 폭정 앞에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민족적 사건이다. 조선의 독립 의사를 만방에 알린 민족운동이다. 그 위대한 3. 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부활,

캠퍼스_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7주년

» 2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진짜 교회”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 주는 교회로 우뚝



기획_ 농어촌교회에 생기 불어넣는 온누리

» 7면

“다시 생각해도 그건 감동의 드라마예요”
농어촌선교팀, 진주 초원교회를 돕다



중고 스마트폰 수거

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fMnC)에서 3월 8일과 15일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수거한다. 수거된 중고 스마트폰에 1,000여 언어로 된 말씀을 담아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다. 수거된 스마트폰은 통화기기가 아니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을 구동하는 미디어 플레이어로 사용된다. 문의: 070-7500-6244, smb@fmnc.net

3월 비전헌금

3월 비전헌금은 희망교복 나눔과 IT선교지원사역 후원에 사용됩니다.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7주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진짜 교회”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 주는 교회로 우뚝

지난 2월 22일 강동 온누리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했다. 2008년 건대 온누리교회로 시작해 2010년 강동 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꿔 사역한지 벌써 8년째다. 그동안 강동 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들이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이날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헌혈하고, 주변 상가를 돌며 전도했다. 지역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강동 온누리교회의 정신이 엿보였다.

창립 7주년 감사예배

여기는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7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당. 예배당에 훈훈함이 가득하다. 창립 7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각 캠퍼스 대표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석인 장로(서빙고 온누리교회)는 “건대에서 시작한 강동 온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며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의 감격한 울동이 이어졌다. 그들은 모두 200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강동 온누리교회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찬양에 맞춰 울동을 선보였다.

“남들에게 축복이 될 삶을 살아가, 매일 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강동 온누리교회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선보인 공연이 강동 온누리교회를 가장 잘 웅변해주었다.

이날 강동 온누리교회 담당 최원준 목사는 성



창립 7주년을 맞이해 강동 온누리교회는 헌혈을 실시했다.

도들에게 교회창립 7주년을 기념하며 헌혈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권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진짜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11층 어린이도서관에 침상이 가득했다. 강동 성도들이 헌혈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부터 장년층,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중앙대학교 헌혈센터 직원들이 접수부터 안내, 검사, 채혈 등을 도왔다.

헌혈센터 황의대 팀장은 “교회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정미자 성도는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나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처음으로 헌혈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지금처럼 섬김과 배려

가 넘치는 강동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회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이민우 순장은 이번 헌혈이 벌써 17번째다. 그는 “창립 7주년에 헌혈을 하게 되어 뜻 깊다”고 밝혔다. 헌혈행사에 동참한 이유는 달랐지만 나누려는 마음은 같았다. 이것이 바로 지난 7년 동안 강동 온누리교회가 성도들에게 심어준 정신이다.

건대 온누리에서 강동 온누리까지

강동 온누리교회의 전신은 건대 온누리교회다. 2008년 2월 24일 아홉 번째 캠퍼스로 문을 열었다. 건국대에서 예배드리면서 태동했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유

일한 캠퍼스 교회다. 청년부(프라미스공동체)를 주축으로 성장했다. 2010년 10월 강동구 천호동으로 터를 옮기며 ‘강동 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강동으로 이사하면서 사역도 대폭 확장했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있는 나비몰(쇼핑몰) 상인들과 인근 천호로데오거리, 강동 지역교회에 선하고 역동적인 ‘온누리 문화’를 심고 있다. ‘48만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 속으로의 교회,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대 김평래 목사, 2대 권혁빈 목사, 3대 라준석 목사에 이어 현재 최원준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상(賞)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1월에 상(賞)을 받았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받아 본 상이라 감회가 깊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단한 상이길래 신문을 통해 자랑하느냐구요? 강동구청장님한테서 표창장을 받았습시다.

“귀하께서는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셨으며 사람이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대표로 받았지만 지역 사회가 강동 온누리교회에게 준 상이지요.

강동 온누리교회는 건대 온누리교회로 시작했다가 2010년 10월 강동구 천호3동으로 이사 왔습시다. 당시 담당목사였던 권혁빈 목사님은 강동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48M’이란 걸 시작했습니다. 48은 강동구민 48만 명을 뜻하고, M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Mercy)을 품고 지역사회로 나가 섬길 때(Mission) 하나님의 기적(Miracle)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어 강동구를 섬겼습시다. 교회는 48만원의 종자돈을 쥐서 지원했고요.

이렇게 시작된 지역사회 봉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가장 가난한 천호3동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장김치 1000포기를 지원했고, 전기료나 가스비를 내지 못해 단전될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조손 가정에 연탄을 배달해 드리고, 장판을 교체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금홍사역팀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격주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찾아주는 이 없는 분들을 찾아가 떡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그밖에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어머니 학교를 개최하기도 했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교회에 전화를 해 표창장을 받게 되었으니 시상식에 참석해 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3)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하셨으니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나눔이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눔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자기 형상을 나눠주시더니,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과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삶과 피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또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한 자발적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나눔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두신 이유가 우리의 ‘선의(善意)’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선의를 시험하는 사람이요 대리인이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출 16:1~12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저서 〈만들어진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허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불쾌한 인물이다. 공공연하게 질투하고, 음모하고, 부당하고, 용서를 모르는 권위적인 인물인데다가 복수심이 강하고, 피에 굶주린 종족 말살자이며, 여자와 동성애자를 혐오하며 인종차별주의자이며, 영아를 살해하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살해하는 인물이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혹평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담은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구약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세심하게 읽었다면 결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체적으로 문맥에 따라, 그 상황을 따라 읽었다면 절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과 정의만 강조하는 냉혹한 신이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을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약만 인정하고, 구약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했습니다. 말시온의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말시온과 도킨스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구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사탄을 대항할 때도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시편을 암송하시고 인용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가르친 것을 교정하면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끊임없이 인용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완성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

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등식으로 매우 무식하고 천박한 사고에 불과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구약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도킨스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도 공의로운 진노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인자를 더 많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참지 않으시는 것보다 참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노하신 경우보다 노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가끔 화를 내면 맨날 화낸다고 말합니다. 사실 부모가 화 낸 경우보다 화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벌하시는 것보다 벌하지 않고 봐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진노 분노는 ‘아브’입니다. 문자적으로 코를 뜻합니다. 왜 코일까요. 아마 진노하면 가장 먼저 코가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럴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문장은 문자적으로 코가 갈다는 문장으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코가 긴 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골메뉴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가혹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 나오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 내어 죽게 할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물살당하는 것을 보고 춤을 추고 노래했지만, 곧이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물로 바꿔주시고 자상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나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남동쪽으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게 된 세 가지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술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와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3절).

그들의 원망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술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억력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술 주변에 둘러앉았을 때만 기억하지 말고 벽돌을 굽던 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기억했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기억력을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때 원망이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실에서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필요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인지 필요인지를 통찰력 있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원망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과장되게 상상합니다.

3절에서 보면 그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양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17장 3절을 보면 물이 없어서 우리와 가족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분명 정확하지 않았고, 비현실적이었고,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해 과장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

이 진노를 불러 일으킬만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 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두 배를 거두어야 한다.’”(4~5절).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의 책망이나 진노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이해하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7절).

8절에서도 모세가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원망을 해결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원망을 그냥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은 그들을 고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 기독교와 3.1운동

3.1운동의 중심에



일제의 폭정 앞에 굴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3·1운동에 깃든 기독교 정신 ... 부활, 순교, 비폭력 평화주의

오늘은 3.1절(삼일절)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 그런데 3.1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 3.1절을 ‘삼점일’로 읽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역사 교육을 등한시하는 현 교육정책이 낳은 안타까운 결과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뒤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날이다.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 선조들의 공헌이 그만큼 컸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기독교계 인사가 16명이나 된다. 불교계 2명, 천도교계 15명이다. 3.1운동의 역사와 의미, 기독교 선조들의 공헌을 살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삼일절 노래’의 첫 구절이다. 노래 가사처럼 3.1운동은 1919년(기미년) 3월 1일 정오에 시작됐다.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에 호응한 각계각층의 참여로 1년 가까이 지속된 대규모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총칭한다.

구한말 조선은 진퇴양난이었다. 왕실의 무능과 집권계층인 사대부의 부정부패에 농민과 하층민들의 삶은 파탄하기 그지없었다. 제국주의가 한창이던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한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폈다.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 이 시기 일본은 미국 페리 함대의 협박으로 쇄국을 포기하고 개항했다. 그리고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을 단행했다. 그렇게 근대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메이지정부는 구미 열강을 따라잡기 위해 조세를 개혁하고, 징병제를 실시했다.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주력했다. 국력이 강해진 일본은 1978년 2월 28일, 강화도에서 한일수호통상조약, 일명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강요로 맺게 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로부터 30년도 되지 않아 조선은 일본에게 완전히 외교권을 빼앗기고 국권마저 강탈당하고 말았다. 그 사건이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다.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통감부를 설치하고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실상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조약이 공포됨으로써 한국 식민지화를 완성했다. 이 사건이 경술국치(庚戌國恥)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다. 일제 군대와 경찰들은 악랄한 무단통치를 시작했다.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농토도 강탈했다. 한민족 말살정책을 펴기에 이르렀다. 이에 민중들의 저항과 독립의식은 날로 커져만 갔다.

3. 1운동, 서막이 오르다

그러던 중 고종의 서거와 ‘2.8독립선언’은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서거했다. 일본은 이 사실을 하루 숨겼다가 다음날인 22일, 사인이 뇌일혈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일제와 친일파에게 고종은 그야말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고종 독살설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고종에 대한 애도는 일본 식민통치에 대한 불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3월 3일 고종의 인산(因山, 임금의 장례를 뜻함)을 기해 전국에서 수많은 유림들과 유력인사들이 대거 상경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에서 재일조선인유학생 600여 명이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투쟁 의지를 천명한 ‘2.8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2.8독립선언이 귀국한 유학생들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그렇게 3.1운동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던 당시 사회에서 대규모 거사를 모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천도교의 손병희, 기독교의 이준, 불교계의 한용운을 중심으로 단일조직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각 학교, YMCA청년 대표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거사를 도모했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했다. 비밀 인쇄된 독립선언서 2만1000장이 서울, 평양, 임실, 용강, 해주, 원산, 의주 등지로 철도편으로 전달됐다. 그

렇게 3월 1일 이른 아침부터 집집마다 독립선언서가 배달됐고, 곳곳에 격문이 붙었다.

3월 1일 정오 종로 인사동에 위치한 대화관(음식점)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늦게 도착했거나 중국으로 피신한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였다.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만세 시위는 서울을 시작으로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서울, 평양, 진남포, 의주, 선천, 원산에서 폭발한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는 22개 부(府), 군(郡)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중국 동부, 만주, 러시아 연해주, 미국, 일본 등 이역만리의 재외동포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짧은 시간 안에 한반도는 물론 해외 각지로 3.1운동 소식이 전파된 데에는 인쇄된 독립선언서 전파가 큰 역할을 했다. 시위에 참여했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의 입소문, 고종의 인산을 보기 위해 상경했다 귀향한 사람들이나, 서울 유학생들의 귀향 보고 등도 시위 확산과 지속에 일조했다. 오산, 송실, 신성, 양실학교 등 종교계 학교를 비롯한 200여 학교의 동맹휴학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3.1운동은 일제의 강제진압과 무자비한 탄압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하지만 3.1운동 정신은 이후 여러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계승됐다. 4월 11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3.1운동에 기초해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무려 26년 동안 독립투쟁과 국토회복운동의 중심체가 되었다.

교회는 고난 받는 민족의 이웃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3.1운동에는 기독교정신이 발현되어 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발을 내딛은 이후,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를 세웠다. 교육선교와 의료선교에 앞장섰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송실학당, 부산진 일신여학교, 정신여학당, 계성학당, 신명여학교, 광림학교, 시원여학교 등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했다. 선교사들은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고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약 30여년 동안 민중계몽에 앞장섰다. 특히 당시 소외된 어린 여학생들에게 신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반상의 차별도 없었다. 복음과 더불어 교육으로 민족의식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3.1운동 전후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확인됐다.

3.1만세 운동의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증거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성들이 만세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교회 여전도회 조직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의 열기가 확산되어 갔다. 유관순 열사가 대표적인 예다. 3.1운동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은 교회와 학생들의 주도하에 일어났다.

독립선언서의 공약을 봐도 기독교정신이 깃들여 있다.

첫째, 부활정신이 나타나 있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에서 활발히 기래하야 만취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만세운동을 탄압하는 일제의 칼날과 총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 모진 고문 앞에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죽음 저편의 부활의 세계를 보았기에,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순교자적 정신이 깃들여 있다. 순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기독교는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종교다. 순교의 역사가 곧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칼을 앞세운 일본 군경 앞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용기는 순교자적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셋째,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이었다. “오직 자유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 나가지 말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든지 밝고 정당하게 하라.”

일본의 침략에 항거해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났지만 철저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주요 수단은 무장봉기를 해 적군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3.1운동은 폭력을 동원한 무장봉기가 아니었다. 일제의 살인적인 진압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3.1운동의 방법이었다. 이는 강포와 무력을 멀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교정신의 발현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실 때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지만(마 26:53),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비폭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교회가 정착한지 불과 30여년, 기독교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기독교가 있었다



취하지 않았다. 3.1운동 직후 기독교는 교회폐쇄, 성도 수 감소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탄압받는 민중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이웃으로 십자가 정신을 발휘했다. 교회는 고난 받는 민족의 이웃이었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기독교가 중심이 된 3.1운동이 끝난 후 교회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제암리 학살사건이다. 3.1만세 시위가 일어나고 얼마 뒤 발안장날에 경기도 화성시(당시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무력으로 진압하던 일본 육군은 4월 15일 제암리교회 30여 명의 성인 남성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 학살했다. 일본 학자들은 “조선에 주둔한지 얼마 안 되어 현지 상황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군인이 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명단을 파악해 교회로 소집시킨 점과 주변 지역의 천도교 지도자까지 파악해 살해했다. 철저히 계획된 만행이었다.

기독교가 입은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총독부가 1919년 5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부 파괴된 교회당 수가 17동, 일부 파괴된 것이 24동, 그 외 교회당의 손해가 41동이었다. 1919년 6

월 30일 투옥된 사람의 수도 기독교인이 2190명으로 유교나 불교, 천도교인을 합한 1556명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조선의 전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의 수는 2%도 채 되지 않는 3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1년 동안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수감된 자는 약 9000여 명, 이 중 기독교인이 224%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멈추지 않았다.

3. 1운동의 열, 유관순 열사

유관순 신사임당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여성이 아닐까 싶다. 올해는 유관순 열사의 순국 95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단순히 어린 소녀의 몸으로 독립을 외쳤다는 것? 그녀는 단순히 만세운동의 주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갈망한 실천가 중 하나였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생가 옆에 매봉교회가 있다. 매봉교회는 천안지역 3.1운동 당시 중심역할을 한 지령리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다. 지령리에 기독교가 전파되자 온 마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유관순 집안도 아버지를 제외하고 예수를 믿었다. 지령리교회는 독립운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

할을 했다. 천안 만세운동의 주도자였던 조인원과 유중무(숙부), 유우석(오빠)도 지령리교인이었다.

그녀는 공주 영명학교를 1년 정도 다니다 1915년 이화학당으로 편입했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은 누구보다 술선수범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업에 임했다. 일요일에는 담 하나 사이에 있는 정동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가 시작됐다. 이화학당의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했으나 당시 프라이 이화학당 교장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교문을 막았다. 유관순과 이화학당생들은 학교 담을 넘어 시위에 동참했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다. 3월 10일 휴교령이 내려졌다.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와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을 주변에 알리고 시위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우내 장날인 4월 1일을 기해 거사를 시작하기로 계획했다. 이날은 음력으로 3월 1일이어서 서울에서 시작한 3.1독립운동의 뜻을 살리기에 좋은 날이었다. 유관순은 아우내 장터의 시위운동을 위해 수십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락하며 시위운동을 조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4월 1일 당일, 아우내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시위에 놀란 일

본군은 총칼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날 시위로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씨가 현장에서 일본군에 의해 죽고, 유관순과 오빠 유우석, 유중무는 체포됐다.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공판에서 유관순은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순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이 받은 형량이 최고 3년이었던 것을 볼 때, 유관순이 시위운동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고, 일본 검사와 판사에 굴하지 않고 얼마나 당당하게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에 항소한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1921년 1월 2일 출옥 판정)을 확정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그러나 체포될 당시 입은 부상과 갖은 고문과 열악한 형무소 생활에 출옥을 몇 달 앞둔 1920년 9월 28일 서대문감옥에서 사망하고 만다. 만 17세의 꽃다운 나이였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다. 꽃다운 소녀였다. 그러나 일제에 분연히 일어나 항거한 용기와 모진 고문과 부당한 판결 앞에서 의연했던 그녀는 그 어느 성인보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가치를 우리는 가슴에 기억해야 한다.

3. 1정신을 기억하자

약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인 3.1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3.1운동에 관해 너무 모르고 있다. 오히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815해방만큼 3.1운동은 중요하다. 3.1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이후 독립운동이 활발해졌다. ‘3.1정신’이라는 말은 있으나 8.15정신이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3.1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은 단순히 역사책 속의 한 줄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다. 그들의 희생 덕에 지금 우리는 평화와 풍요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3.1운동 때 외쳐진 ‘자유’를 먹고 산다. 3.1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기본을 만들고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들을 만나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청년들

허브공동체, 노인복지관·베이비박스·보육원을 섬기다



베이비박스를 섬기는 허브 대학부의 지체.

허브(HUB)공동체(담당 전현규 목사)는 2006년 창립된 대학부다.

허브(HUB)는 중심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는 의미다. 연결이라는 뜻도 있다. 교회와 세상을 연결한다는 의미다. 허브공동체는 이름에 걸맞게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허브공동체는 청운노인복지관, 청운보육원 그리고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청운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종이 접기, 지점토 만들기, 간단한 게임, 마사지 등을 하면서 섬기고 있다.

청운보육원에서는 부모가 없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 및 학업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신생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박스다. 허브공동체는 매일 2시간씩 아기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 15개 대학캠퍼스에서 말씀과 기도

로 교제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캠퍼스 리더십들에게 ‘전도폭발 Xee’ 훈련을 전수해 캠퍼스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있다.

허브공동체 지체들은 낮은 곳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참으로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다. 주는 사랑보다 받아오는 사람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의 고백이 정말 아름답다. 허브공동체 사역현장에서 만난 세 친구들의 간증이다.

초심 되찾아

슬픔이 섬김의 기쁨으로

복지관을 섬기기 몇 달 전 외할머니 장례를 치렀다. 나는 외할머니의 예쁨을 많이 받았다. 나도 외할머니를 잘 따르고, 함께하는 것이 기뻐다. 그만코 외할머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슬펐다. 외할머니께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었다. “왜 나만 교회에 다녔을까?”, “왜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후회가 되었다. 나만 교회에 다니고, 나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익숙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 외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지관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복지관 어르신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들은 우리를 친손자, 친손녀처럼 반겨주셨다.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셨다. 무엇보다 외할머니에게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다. 기도와 섬김을 통해 어르신들이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외할머니의 죽음은 슬픔과 후회로 남았지만, 그 슬픔을 섬김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송다미 자매



홍진희 자매



김동권 형제

베이비박스는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랑공동체에서 설치했다. 불가피하게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미혼모의 아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온다. 허브공동체는 유기되는 아기가 머무는 동안 돌보고 있다. 나는 처음에 아기가 좋아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이라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달라졌다. 아기들에 대한 사랑이 일이 되어버렸다.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에 아기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고, 복지관으로 보내는 과정에 참여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일로 생각하고 돌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이 떠올랐다.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버려졌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회복되었고, 사랑 받기에 충분하게 창조하셨다. 아기들을 품에 안고 이동하는 동안에 아기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폈다. 내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은 내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다. 나는 오늘도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보육원을 섬긴지 5개월 정도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중학생이라는 것이 걸렸다. 두렵고 걱정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아이들이 투정이 많았다. 활동에 집중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곤 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 모두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열심히 해주었다. 하나님께도 아이들에게도 정말 감사했다. 이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 받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함께하는 아이들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고 싶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청년, 하나님을 만나다 윤채영 자매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부족한 것 없이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러던 중에 허브공동체를 만났다.

허브공동체에서 드린 첫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드린 예배였다. 찬양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채워졌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허브공동체에서 만난 동역자들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 덕분에 하나님과

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내 주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허브공동체에서 만난 하나님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믿음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허브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완공된 초원교회 앞에선 이기성 목사 부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837번 길, 새 하얀 건물이 침엽수들이 늘어선 광제산 앞에 떡하니 서 있다. 동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아가자기 하고 참 예쁜 건물이 바로 진주 초원교회다. 중앙에 있는 흰색 아치형 지붕은 그리스 미코노스의 하얀 집 ‘파라포르티아니 교회’를 떠올리게 한다.

중단됐던 공사가 4년 만에...

“다시 생각해봐도 그건 감동의 드라마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만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5주 동안 함께 먹고 자며 고생해주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성 목사(초원교회 담임)가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는 이유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이 교회가 일 년 전만 해도 뼈대만 있었기 때문이다. 외관만 존재했지 내부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만 하고 있던 이기성 목사에게 한줄기 빛이 비추었다. 바로 온누리교회였다. 온누리교회가 지난해 2월 봉헌한 비전헌금 1억6천여 만 원 중 일부가 농어촌선교팀을 통해 초원교회에 전달됐다.

오랜 시간 중단됐던 공사가 생기를 되찾았다.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바쁘게 진행됐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성도들은 5주 동안 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일손을 거들었다.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전달해 준

헌금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했다. 이기성 목사가 2011년 2월 진주시 명석면 산기리에 전원(田園)교회를 계획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4년여 만이었다.

어린이, 청소년 성도가 70%

초원교회는 12년 전에 세워졌다. 처음에는 진주 이현동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 목사는 기도하던 중 큰 결심을 하게 됐다. 전원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2011년 2월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로 교회를 이전했다.

이전 당시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진주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4%밖에 되지 않는 곳이다. 교회가 이전하는 마을 주민들은 불교 신자가 대부분이었고, 사찰과 성철스님의 생가도 있었다. 주변의 반대가 극심했다. 지금은 마을주민들이 교회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목사는 늘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초원교회는 2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린다. 여타 농어촌교회와 다른 점은 어린이, 청소년 성도가 70%라는 점이다. 아이들이 14명이다. 교회는 시내와 16km 떨어져 있어 이기성 목사가 시내에서 아이들을 직접 태워온다. 교회 마당에는 아이들을 위한 트램폴린도 있다.

올해부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성경공부도 하게 됐다. 지난 2월 14~15일에는 이를 동안

학생들을 위한 새벽예배도 드렸다.

이기성 목사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청소년 브라스밴드와 난타 팀이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인원이 사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딱 맞다.

또한 초원교회는 매년 여름캠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온누리교회 S브릿지공동체 청년들이 마을잔치와 여름캠프를 도왔다. 올해도 두 차례 여름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매일 두 시간 기도, 두 시간 전도하는 목사

초원교회는 이기성 목사의 첫 사역지다. 2006년 5월부터 목회를 시작해 올해 10년 차다.

10년 동안 눈에 보이는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주신 비전과 뜻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역하고 있다. 매일 두 시간씩 기도하고 두 시간 전도하고 있다. 그것이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주중일과다. 그 노력 덕분에 성도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기성 목사는 23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런데 아내 김현옥 사모를 만날 때까지 그 서원을 잊고 살았다고 한다. 결혼 후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배경에는 묵묵하게 뒷바라지 해준 김현옥 사모의 도움이 컸다.

김현옥 사모는 이 목사를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꾸준히 어린이 재단에서 봉사하고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목회자 최저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사역하고, 비전을 밝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이기성 목사 부부는 총 20여 성도가 출석하는 초원교회를 직접농사를 지어 번 수입으로 꾸려나간다. 목회자인 동시에 농업인이다. 양계장을 운영하며 유정란을 판매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한다.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농업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매주일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일부는 이기성 목사가 직접 재배한 것들이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올해 이기성 목사는 큰 결단을 내렸다. 4년 동안 해오던 양계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목회에 더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목사 부부들이 양계업과 버섯 재배를 하면서 목회를 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양계사업을 정리하면 재

농어촌교회에 생기 불어넣는 온누리

1. 정읍 장재중앙교회

2. 진주 초원교회

“다시 생각해도 감동의 드라마예요”

농어촌선교팀, 진주 초원교회를 돕다



비전헌금으로 완공된 교회 내부.

정적인 어려움이 더 커지겠지만 이 목사의 결단은 단호했다.

“두 달 동안 전도해서 5명의 아이들과 3명의 성도가 교회에 새로 왔어요. 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목회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온누리교회의 도움도 한 몫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마음으로 집중하겠습니다.”

후원문의: 구자엽 총무(010-4286-0078)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농어촌선교팀은

온누리 농어촌선교팀은 ‘농어촌 지역의 복음 부흥’을 비전으로 농어촌 미지립교회가 자립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어촌교회의 동역자다.

농어촌선교팀의 사역은 다양하다. 중보기도(농어촌 지원교회를 위한 기도)와 도·농브릿지 사역(농촌 미지립교회 목회지원 사역), 아웃리치(매월 1~2회, 여름 연합), 농어촌교회 탐방(재정 지원, 비전헌금 등) 네트워크 사역(재정, 프로그램, 방송매체 연결), 목회자 회복 사역(부흥축제 초청), 농어촌교회 개보수 사역 등을 하고 있다.

■ 농어촌교회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날짜: 3월 15일

장소: 산청 내대교회 박성환 목사(010-3790-6887)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55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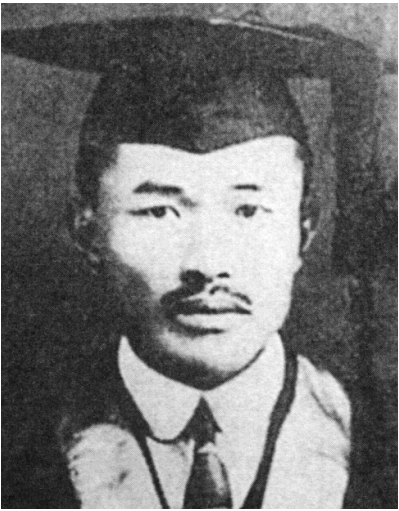
주요사역: 연합주일예배, 한방진료, 마을청소, 현지성도와의 교제 등

회비: 2만원(1인)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두들겨 맞고, 생매장 당하면서도...

독립운동가, 교회개척가 이도종 목사

이도종 목사
(1891-1948)

이도종牧사는 조봉호 순국지사와 함께 상해 임시정부에서 ‘군자금 모금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제주도에서 사역한 최초의 목사이기도 하다. 이도종牧사는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풍牧사보다 먼저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제주도 중문교회, 남원교회, 고산교회 등에서 사역했다. 16년 동안 10개 교회를 세우고 전도에 힘쓴 개척자였다.

교회 세우는 일에 목숨 걸다

이도종牧사는 1891년 제주 애월읍 금성리 706

번지에서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8년 이기풍牧사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제주도는 ‘이재수의 난’으로 인해 서양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때였다.

이도종牧사는 이기풍牧사의 소개로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전남노회에서 안수받고 제주도 출신 첫 목회자가 됐다. 그는 서귀포교회와 중문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시무하며 복음 전파에 전심을 다했다. 1937년 남원교회에서 시무하던 당시에는 제6대 제주노회장에 선출되었다. 또 후세교육의 절실함을 깨닫고 만주까지 가서 기금을 모아 제주3도 2동 905번지(현 YMCA 자리)에 제주성경학원을 세웠다.

그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부터 해방 이후까지 와해된 제주노회와 교회를 복구하기 위해 애썼다. 제주출신 목회자 강문호, 조남수와 함께 전역을 돌며 흩어진 교인과 교회를 수습했다. 그리고 화순교회의 목사로 사역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948년 제주에서 43사건이 발생했다. 7년 7개월 동안 무장대와 토벌대가 무력충돌했다. 3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이다. 학살의 주범 서북청년단(1946년 북한 출신 청년들이 월남해 조직했던 극우 반공단체) 구성원의 85%가 기독교 출신이



이도종牧사의 유해와 기념비가 세워진 대정교회.

었기 때문이다.

이도종牧사는 43사건 직후 6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고산에서 인성교회(현 대정교회)로 오다가 무장대에게 붙잡혔다. 혐의는 ‘양놈의 사상을 전파하는 예수쟁이’,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였다. 십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는 생매장 당하는 상황에서도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

서”라고 기도했다. 당시 그의 나이 55세였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대정교회에는 이도종牧사의 유해와 순교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당시 대정교회 성도들은 이도종牧사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대리석처럼 구멍이 없는 산방산 돌을 직접 캐다 글을 새기고, 비석을 세웠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목회칼럼 김종아 목사(수원 고등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의 이야기’

얼마전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정리할 일이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부터 최근 사진들을 분류하며 그날의 기억들을 서로 이야기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같은 사진을 보아도 두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달랐다.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마치 사진 속 상황이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날 것 같은 표정과 흥분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경험, 혹은 타인의 경험을 글 또는 말을 이용해서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다. 지금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지식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이야기인 것이다. 그 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내용들을 배열하고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발전시켜 나간다.

제롬 브루너라는 교육학자는 인간의 사고 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로 나누고 있다. 패러다임적 사고에서는 지식 습득을 원인과 결과의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 등으로 훌륭한 이론, 치밀한 분석, 논리적 증명, 건전한 토론을 만드는 것이다.

반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개인이 주변의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느낌과 감정들을 통해서 사고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학습을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고하고 학습한다. 일반 지식의 영역 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적 혹은 내러티브적 사고를 한다. 신앙 생활을 하며 성경공부, 통독, 암송 등을 통해서 지식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습득한다. 또한 성경공부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자신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게 된다.

유대인들의 삶에서도 이런 형태의 교육이 나타난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통해 단순히 귀로 듣는 하나님이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웠다. 유월절에는 흠 없는 양을 구워 쓴 나뭇잎과 무교병을 먹으며 그날의 사건을 실감나게 회상했다. 또 초막절에는 광야 40년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7일 동안 말짙한 집을 놔두고 집 앞에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기억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가 들려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나님의 이야기

가면 역사속이 아니라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로 들려진 것이다.

우리는 신앙지식을 쌓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정보는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 있게 되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정보가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힘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스토리텔러는 바로 부모이다. 화려한 기교나 고무 놀려 놓은 것 같은 얼굴 표정이 아니어도 괜찮다. 작은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에도 아이들의 상상력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현장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인생이라면 소망이 있다. 나의 이야기는 없고 남의 이야기에 열광하며 끝없이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의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이다.

대한민국 기독교, 그 찬란한 역사를 만나다

충북지역과 청주를 사랑한 이방인들

밀러 선교사와 로건 부인을 회상하다

1906년 충북지역에 대홍수가 닥쳤다. 200여 명의 주민들이 청주 탐동 언덕으로 피신했다. 당시 충북지역 선교를 위해 몸 바쳤던 프레드릭 밀러(F. S. Miller, 민노아) 선교사는 일신여고 관사와 부속건물 일부를 제공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고, 위로했다. 그러는 동시에 복음도 전했다. 그 모습에 지켜본 주민들이 감격했다. 그렇게 청주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 이야기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는 186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다. 피츠버그대학과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1892년 11월 15일, 아내 안나 밀러(Anna R. Miller)와 함께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다.

밀러 선교사는 한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1893년에는 서울 예수교학당(경신학당)의 책임자가 되면서 학교 이름을 민노아학당으로 바꿨다. 선교와 교육에 힘썼던 그는 안창호 같은 훌륭한 인물을 길러내기도 했다. 1895년 세워진 연동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도 했다. 충북 땅에 처음으로 조직교회가 생긴 것은 밀러 선교사와 김흥경에 의해 1904년 청주읍교회(현 청주제일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였다.

밀러 선교사는 가족들을 잃은 고통도 겪었다. 1898년 밀러 부부의 첫 번째 아들 프레드 밀러(Fred S. Miller)가 출생한지 8개월 만에 사망하고, 둘째 아들 프랭크 밀러(Frank Miller)도 1902년 3월 7일 출생한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아내 안나 밀러는 이듬해 1903년 6월 17일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혼자가 된 밀러 선교사는 제3대 정동여학당장 도티(Doty Susan A.)와 재혼했지만 1931년 두 번째 사별을 한다. 이후 딘(Dean M. Lillian)과 재혼했다.

44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

밀러 선교사는 1906년부터 카긴(E. Kagin) 선교사와 함께 탐동 아산울 당시 26원에 사들

였다. 그리고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당시 외국 선교사들은 선교와 의료, 교육 활동, 거주를 위해 건물을 지었다. 밀러 선교사도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청주 탐동 일신여고 안에 있는 최초의 서양식 건물 청주탐동 양관(충북유형문화재 133호)이다.

탐동양관은 충북지역 대홍수 때 주민들의 피난처로 제공됐다. 그는 1930년까지 25년 동안 5만여 평의 땅에 붉은 벽돌과 함께 기와를 얹어 동서양이 혼합된 건물들을 차례차례 지었다.

밀러는 청주지역에서만 44년 동안 선교활동을 했다. 청주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청남학교, 청신여학교, 청서학교, 청북학교 등 여섯 개 학교를 세워 근대교육도 실시했다. 1902년에는 장로회, 감리회의 연합찬송가 제정을 위한 '통합공의회 찬송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05년에는 찬송가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를 작곡했다.

1911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경기, 충청 노회장으로 활동했다. 1937년 10월 6일 71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충청지역 선교와 교육, 서양문화 보급에 온 힘을 다했다. 그의 묘비는 일신여고 양관 앞에 세워졌다. 기념비는 1984년 9월 14일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에서 세웠다.

서울에서 140km 떨어진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탐동 185-1번지에 일신여고가 있다. 청주 스테이션 유적지 중 하나다.

일신여고 입구에 들어서 본관을 지나 왼편에 있는 학교 안내도를 따라 걷다보면 포사이드기념관, 민노아기념관, 노두의 기념관, 던컨기념관, 로위기념관 등을 만날 수 있다. 밀러가 포사이드(H. M. Forsyth)의 기부금으로 1906년 완공한 건물이 바로 포사이드기념관(충북유형문화재 133-4호)이다. 학교 중앙 언덕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탐동양관 같이 동서양이 혼합된 건물양식을 갖췄다. 기념관 앞에는 세 개의 묘비와 한 개의 기념비가 서 있다.

세 묘비는 밀러와 퍼디(Jason G. Purdy, 부레선) 선교사와 솔타우(T. S. Soltau, 소열도) 선교사의 아들 데오도라의 무덤이다. 학교 별관 가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청주제일교회.

까이 자리 잡은 던컨기념관도 던컨(J. P. Duncan) 부인이 보낸 기부금으로 지어졌다. 로위기념관은 1910년 캔자스 주 매클링(I. S. McClung)의 지원으로 건축됐다. 선교사 주택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청주에는 20세기 초 복음이 전해졌다. 경기도 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박해숙이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를 했고, 북감리회 스웨어러(Wilbur C. Swearer, 서원보) 선교사가 청주를 방문했다. 본격적인 청주 선교는 밀러 선교사가 주도했다. 그와 한국인 김흥경을 따르던 청주 지역유지들과 청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 밀러 선교사와 김흥경의 땀과 노력으로 지금의 청주지역 교회들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건 부인과 청주제일교회

일신여고에서 1.5km 거리에 청주제일교회가 있다. 청주 시가지의 좁은 골목 한가운데서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904년 남문 밖 한 초가집에서 시작된 교회는 한옥기와집, 목조 예배당 등으로 재건축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1951년 증축된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일신여고 양관은 인민군들이 쳐들어오면서 야전병원으로, 청주제일교회는 인민군 사무실로 이용됐다. 이때 청주제일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공산당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지금도 교회 외벽에 총탄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청주제일교회 마당에는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비석으로 알려진 '로건부인기념비'가 있다. 1919년 사망한 로건(V. Logan) 부인을 기념하며 1921년 건립된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진 로건 부인은 1909년 3월, 53세의 늦은 나이로 한국에 온 선교사다. 남편과 사별한 지 일 년 만이었다.

이 무렵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규선교사로 임명되어 재정 지원을 받고 활동했다. 하지만 로건 부인은 미국 선교부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자비량 선교사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건 부인은 조선 선교를 향한 굳센 믿음으로 10년 동안 청주지역 여성 선교를 전담했다. 탐동에 있던 그녀의 집 방문 앞에는 짚신이 적게는 열 켤레, 많게는 40여 켤레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로건 부인은 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선교사였던 것이다.

그녀는 집에서도 매주 15시간 쯤 여러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이때 참여한 여성들의 숫자가 50-6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로건 부인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탐동 185-1번지에 있는 집은 현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3-5호로 지정되어 '로위(Lowe)기념관'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로건 부인은 한국말을 잘하고 충북지역과 청주를 사랑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청주지역 여성교육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자 여성의 근대화 의식 형성에 크게 기여한 선교사였다.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일신여고 내 포사이드기념관과 세 개의 선교사 묘비.

2015년 집사, 권사 임직 자격 및 일정

6월 13일까지 양육과정 수료, 순·공동체 활동, 십일조하고 있어야

2015년 온누리교회 집사, 권사 임직 자격 및 일정이 발표됐다.

집사는 35세 이상, 권사는 50세 이상 된 성도로 세례일과 온누리교회 등록일이 각각 5년과 8년 경과되어야 한다. 명예권사는 70세 이상, 세례일과 교회 등록일이 각 5년과 3년 경과되어야 한

다.

임직대상자들은 6월 13일까지 QT Basic과정을 이수하고, 3명 이상 일대일 양육을 완료해야 한다. 성경통독,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로마서, 하나님의 성품, Why Mission, 순장학교도 이수해야 한다.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50%이상 참석해야 하고, 십일조를 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자격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준 구분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연령	35세 이상(1980년 2월말)	50세 이상(1965년 2월말)	70세 이상(1945년 2월말)
세례일	5년 이상(2010년 2월말)	8년 이상(2007년 2월말)	5년 이상(2010년 2월말)
교회등록일	5년 이상(2010년 2월말)	8년 이상(2007년 2월말) 집사 임직 후 3년 경과한 자	3년 이상(2012년 2월말)
기본 양육과정	QT Basic을 이수한 자 (6/13까지)		성도에게 모범이 되고 교회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일대일 양육	일대일 3명 이상 양육 완료한 자(6/13까지)		
필수 양육과정	성경통독,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로마서, 하나님의 성품, Why Mission, 순장학교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6/13 까지)		
공통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50% 이상 참석) 십일조를 하고 있는 자,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지난해 목양대회.

상반기 목양대회 개최

3월 7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
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리더십 대상

2015년 상반기 공동체 목양대회가 3월 7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오른다. 교역자, 장로, 권사, 순장, 다락방장 등 공동체 리더십들과 차세대, 대학·청년부 리더십들도 참석해야 한다.

올해 공동체 목양대회에서는 신입 순장, 다락방장, 차세대 코치, 대학·청년부 신입MC 등 약 750여 명에 대한 임명식이 진행된다.

교회 측은 행사 당일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대중교통이나 공동체별 카풀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촌역에서 교회로 오는 서를을 운행할 예정이다.

공동체 목양대회는 개강을 앞두고 교회 리더십들이 모두 모여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은빛날개세미나’ 열린다

3월13일부터 서빙고 홍보관

사회선교본부에서 3월 13일부터 4주 동안 ‘은빛날개세미나(은퇴 이후의 삶)’를 개최한다.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빙고 홍보관에서 열린다. 회비는 1만 원(교재, 간식 포함). 30

대 이상 성도가 대상이다.

사회선교본부측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새롭게 쓰임받는 분야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성도들을 초청했다.

문의: 02-3215-3434, 조기훈 총무 (010-5336-5820)

새학기 학부모 기도회 열린다

3일 오전 10시,
서빙고 한동홀, 양재 화평홀

새학기 학부모 기도회가 열린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오는 3일(화) 오전 10시 서빙고 한동홀과 양재 화평홀에서 ‘새학기 학부모 기도회’를 연다.

노희대 목사(차세대본부장)와 박승재 목사(차세대 파워웨이브), 박재원 소장(행복한공부연구소), 고봉익 대표(TMD교육그룹CEO-크리스천 인재양성)가 메시지를 전한다.

차세대 본부장 노희대牧사는 “이번 기도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 많은 부모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어머니기도회는 3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오전 9시15분부터 서빙고 누리홀, 양재 화평홀, 도곡 온유희에서 열린다.

문의: 02-3215-3523(서빙고), 02-570-7553(양재)

축하합니다

양재 2월 세례자

강은숙 651025	이동원 이혜민
권해옥 721023	장시안 140408
이유선 740731	정현식 김수정
나유희 810116	정찬영 130915
이현우 860226	정동명 이자영
방효선 770903	이찬서 140629
손해근 541118	이국진 유민정
오현구 890308	최단비 140708
허진 930426	최경원 유은정
	정현준 131230
	정동윤 이세윤
▷ 유아	
이윤서 130523	

2015 선교헌금 112억 작성

27,276명 동참, 재능기부 801명

2015년 선교헌금 작성 결과가 집계됐다. 27,276명이 112억 원을 작성했다. 재능기부 후원도 이어졌다. 선교사 기도편지 교정교열 112명, 소산지 디자인 53명, 영어번역 253명, 웹 프로그램 16명, 중보기도 367명 등 총 801명이 재능기부를 했다.

올해 봉헌한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 선교사역지원, 선교사 복지, 차세대 선교자원 동원, 통일선교 준비, 북한선교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이주민 선교, 새터민선교, 외부선교 유관기관 지원, 30주년 선교대회 및 국제 선교 포럼을 개최하는 데 사용된다.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기기 위해 새해 첫 주일과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올해는 1월 4일과 11일에 선교헌금 작성행사를 실시했다.

문의: 02-3215-3616(선교헌금), 070-4949-7882(재능기부)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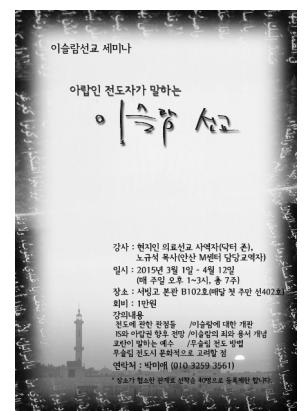
오늘부터 이슬람 선교 세미나 시작

7주 동안 매주일 오후 1시

이슬람 선교 세미나가 열린다. 온누리미션 소속 아랍예배 주관으로 열리는 ‘2015 이슬람 선교 세미나’가 오늘(1일)부터 4월 12일까지 오후 1시 서빙고 B102호와 402호에서 진행된다. 이슬람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이슬람 개관, 이슬람 전도에 대한 관점, 아랍권 향유 전망, 이슬람에서의 죄와 용서의 개념, 코란이 말하는 예수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강의는 아랍 의료 전문 선교사 역자 닥터 존(Dr. John)과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가 한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아라크 등 이슬람을 믿는 아랍권 선교를 지속해왔다.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의료사역, 마을개발 등의 사역을 했다. 2011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세웠다.

문의: 박미애(010-3259-3561)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사랑챔버, 디어필드아카데미와 협연

13일 오후 7시30분 영산아트홀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와 디어필드아카데미(Deerfield Academy) 오케스트라가 오는 13일(토) 오후 7시30분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협연한다. 비발디의 사계, 콘체르토, 몬테, 아리랑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디어필드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미국 5대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인 디어필드 아카데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케네디홀에서도 초청공연을 했다.

/ 정지은 기자



교토 기·도·제·목

- 3월 2일(월) 22번째 러브소나타로 일본선교의 열매 성취 계기 되도록
- 3월 3일(화) 교토의 4월 관광시즌이 영적인 혼란함을 주지 못하도록
- 3월 4일(수) 지역교회들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 3월 5일(목) 100개의 협력교회와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예비되도록
- 3월 6일(금) 모든 강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권세가 더해지도록
- 3월 7일(토)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일본의 영적 지도들이 일어나도록
- 3월 8일(일) 봉사자, 스태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음식과 기도로 준비하도록

제1038호 | 2015년 3월 1일(주일)

■ 세례간증

주를 아버지라 받아드릴
마음만 있으면

/ 방효선 성도

온누리교회에 다닌 지 1년이 되어간다. 웬지 모르는 끌림에 계속 나오게 되었다. 나는 브릿지33+공동체에서 오래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것은 친언니의 권유 때문이었다.

온누리교회의 찬양예배 특성이 정말 좋았다. 그 찬양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어떤 오케스트라의 공연보다도 좋았다.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탁 터지는 것 같은 박찬 느낌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 그래서인지 온누리교회 예배는 계속 드리고 싶었다. 매주 찬양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혼자 외롭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나의 고민을 아신 양육자님의 권유로 브릿지33+공동체에 소속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초신자인 나를 사랑하셔서 갈 길을 인도해주셨다. 훌륭하신 양육자님을 연결해 주셔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세례를 받아도 되는지 고민하던 나에게 "주를 아버지라 받아드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용기를 주신 양육자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겼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추스른다. 교회를 다니는 본질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것임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다. 몸매 힘을 빼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기도와 말씀에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매일 조금씩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한다.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공동체의 중요함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QT와 나눔, 지체들과의 교제가 이제는 편안하다. 마음을 열기가 힘들기도 했고, 나눔을 할 때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떨렸던 마음들이 나를 더 성장하게 했다.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가 넘친다. 무엇보다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설렌다. 나는 오늘도 천천히 주님께 나아간다.

■ 세례간증

갓난아기가
조금씩 걸음마를 하듯

/ 나윤희 성도

나는 어머니 덕분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성탄절이나 여름성경 학교에 놀이삼아 다닌 정도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 발을 담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삶이 힘들고 두려울 때면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말이다.

큰언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썼다. 큰언니의 도움으로 몇 번씩 교회에 가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몸만 교회에 있었지 그 이상의 믿음은 없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 있었다.

4년 전, 갑작스러운 작은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유일하게 믿고, 알았던 주님을 한없이 원망하게 됐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황폐해졌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항상 옆에서 쉬지 않고 나를 전도했던 큰언니의 권유가 또 이어졌다. 그렇게 나는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JDS 예수제자학교'에 들어갔다.

막상 가보니 그곳에는 나 같은 초신자가 없었다. 성령 충만한 분들만 모여 있는 있었다. 알 수 없는 말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와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어떤 물질적인 것, 사람과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껏 맛보지 못한 평안을 주셨다. 그동안 내가 겪은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깨닫게 하셨다.

나는 갓난아기가 조금씩 걸음마를 하듯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가는 중이다. 나의 믿음은 아직 많이 미약하다.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고 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조금이나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평생 노력할 것이다. 이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을 고백한다.

■ 일대일 제자훈련을 마치고



/ 권오신 성도(신용산공동체)

일대일은 감동이다

11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4개월 이상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성경일독을 하면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때 나는 나름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지혜로 잘 되어가는 줄만 알았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왔다.

나 혼자서 경건한 척 살아왔다. 술을 안 마시는 나에게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는 동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술이 몸에 안 맞아 못 마신다고 했다. 누군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마신다고 물으면 소극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하곤 했다. 군부대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보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했다.

32년간의 군 생활을 끝내고 6년간 민간인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직업상 각 지역을 오가며 24개의 크고 작은 교회에 출석해 왔다. CGNTV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 채널을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말씀도 들었다. 그 중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누리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성경 중심적인 말씀

에 큰 은혜를 받았다.

특히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매주일 나를 양육해주신 장로님께 감사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를 통해 진행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매주 해야 하는 예습이 부담이었지만 나와 나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알차게 배우고자 노력했다. 말씀을 철저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려고 애썼다.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자랑이요 자부심을 주는 큐티 또한 생활화하기 위해 열심이었다. 일대일 제자훈련을 수료한 지금 생각하면 매주 교재예습에만 몰두한 나머지 깊이 있게 복습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제는 다음으로 미루는 생각을 버리고, 가능하면 제 때에 행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전도의 황금어장인 군선교에 관심이 생겼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군장병들의 손에 쥐어지면 좋겠다. 스스로 또는 집단별로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갈망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큐티를 하면서 온 세상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그윽한 향기가 온전히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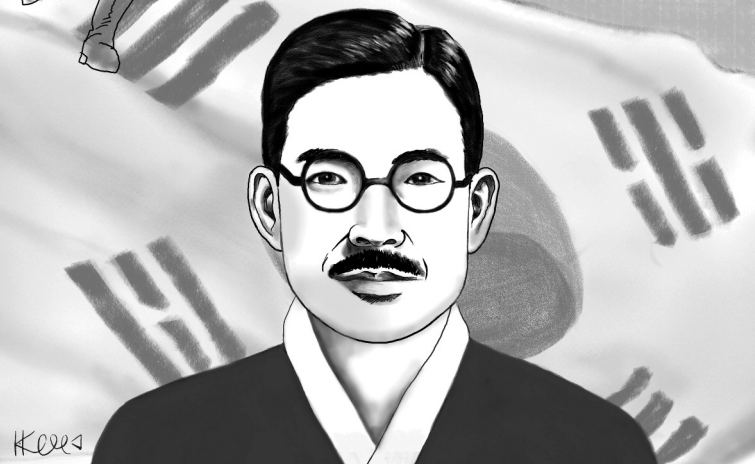
고경미 간사의 위클리 공감
(디자인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게,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를 뿡니다.
이 몸은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 주기철 목사 -





장로칼럼 김선택 장로(성북공동체)

“조도(鳥島)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윤현수 목사님과 이재나 사모님은 조도(鳥島)에서 사역하고 계시다. 윤 목사 내외분과 내가 알게 된 것은 4년 전이다. 목사님 둘째딸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마침 <생명의 삶>에 실린 ‘더스킨’ 화장품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오셨다. 그때부터 나와 아내는 윤 목사 내외분과 연락을 하며 그들의 사역과 상황, 어려움 등을 알게 되었다.

조도는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에 위치해 있다. 진도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30분 정도 가면 나온다. 상·하조도 6개를 포함해 154개의 섬이 마치 물새들이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54개 섬 중 32개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무인도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물살이 심해(맹골수도) 작은 선박들은 항해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청정지역이다. 이곳에서 잡히는 멸치나 미역은 맛과 품질이 우수해 수출되기도 한다.

윤현수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성북공동체에서 멀치를 판매하는 등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2013년 윤 목사로부터 섬마을 담에 벽화를 그려줄 수 있는 부탁을 받았다. 마침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인도네시아 반동에 가서 마을과 고아원 담에 그린 벽화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여호수아 청년부 10명을 포함해 성북공동체 지체들은 2박3일 동간의 짧은 아웃리치 일정으로 조도를 방문했다. 성경적 내용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멋지게 그렸다. 벽화를 보는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했다. 조도에 오길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윤 목사님은 2.45톤의 작은 배로 본도에서 가까운 섬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울육도에서 매 주일마다 7명의 어르신들과 예배

를 드리고 있다. 청등도에는 147명이 살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신중하고 있다. 청등도를 방문하기 위해 목사님 내외분과 같이 배를 탔다. 배가 너무 작아서 좌우현에 탄 사람이 수가 많지 않으면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험한 물살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와 달리, 선장(윤현수 목사)과 조수(이재나 사모)는 평안해보였다. 험한 바다가 익숙해질 정도로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섬사람들을 섬기고 계셨다.

작년 여름에도 성북공동체는 조도에 가서 마을 안쪽 담과 노인정 등에 벽화를 멋지게 그려드렸다. 지난 13년간 윤 목사님 부부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한 조도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교회를 세워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윤 목사님은 자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다른 작은 섬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지금도 작은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순회하고 있다. 작은 배는 윤 목사에게 두 달과 다름없다.

그 작은배를 10년 넘게 사용했다. 이제는 낡아 몇 번이나 위기를 맞은 적도 있다. 예인(曳引)되는 일도 있었다.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12월까지만 사용하고 처분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조금 큰 4톤짜리 배를 건조하기로 했는데, 배 처분한 천 만원 외에 지금이 없다. 3월에 배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건조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어서 전화했더니 “절반은 채워졌어요. 나머지 금액도 하나님이 하시겠죠”라는 말만 들었다. 배 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마을 주민들이 말하는 대로 마을에 교회를 세우면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목회 길을 가시는 윤 목사님 내외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후원문의: 010-5248-8771



권사칼럼 이정자 권사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전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발견했다. 잃어버린 지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을 했다.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곳은 천주교 재단으로 신부님께서 개신교 성도인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봉헌된 수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나에게 큰 행복이다. 이곳에는 천주교 교인들이 파정을 오기도 하지만 공기 좋은 산 속에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러 온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들면서 캠핑장에 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전도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전도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도훈련을 받기로 결심을 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사역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11기 온누리 전도학교’ 의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배운 것은 죄로 인

해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회복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5분 내외로 전하는 것이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40-50분 동안 전하는 방법도 배웠다. 5분이라는 말에 부담 없이 전도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막상 훈련을 받아보니 복음을 도표로 그리면서 전하는 방법, 전도지로 전하는 방법,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접근법, 여러 가지 반대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대답하는 방법 등 10주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복음 전문을 외우고 조원들과 함께 한강 선착장, 축구장 등지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훈련을 마치게 되었다.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이제는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 같다. 전도훈련 받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왠지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전도훈련을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변화된 나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이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는 것이 감사하다.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껴 다시 한번 훈련을 받기로 하였다. 이번 온누리전도학교 12기 훈련은 3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내가 받은 전도훈련의 은혜를 많은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 오늘도 나는 전도 학교에서 배운 ‘11기 전도’를 한다. 11기 전도는 하루에 한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김정숙 목사(호스피스 담당)

온누리 호스피스를 아시나요?

한 가정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묵도하곤 한다. 폐암으로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영혼구원을 바라는 딸의 이야기가 온누리 호스피스에 전해왔다. 2남 2녀 중 막내딸이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온누리 호스피스의 훈련된 사역자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동하였다.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게 세례도 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이 환자는 폐암 말기로 의료적 연명치료를 끊은 지 몇 달 지났다. 햇살 가득한 거실, 이동식 침대에 누워 오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지루한 투병생활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간절함과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는 안도하고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세례식이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으니 마음이 편하다면서 웃기도 하셨다.

아내를 불러 온누리 호스피스팀에게 차를 대접하라고 말하는 모습에 생기가 넘쳤다. 곧 일어나 뛰어 다닐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몇 주 후 막내딸로부터 “아빠님께서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가시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으로 죽음 준비가 잘 되셨던 분이셨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에 맞춰 봉사자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임종예배를 드렸다. 돌아가신지 5시간이 지났는데도 온기가 남아 있었다. 임종 며칠 전 막내딸이 찾아와 “아빠”하고 부르자 “응 00이 왔니? 언제 왔어?”하더라. “아빠, 나 △△야! 안니 오라고 할까?”

아버지는 일본에 살고 있는 만딸을 그리워하셨던 것이다. 급히 일본에서 온 만딸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침상을 지켰다. 딸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깨어 보니 아버지가 손을 꼭 잡은 채 육체를 벗어 버리셨다. 그 고귀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렇다.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만 한다면 질병이 주는 고통을 잠잠하게 눌러 버릴 수 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만딸은 우리가 소개한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녀는 앞으로 교회 나가리라 마음먹고 있다고 한다. 두 아들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상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막내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장례였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호스피스 사역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열매 맺는 사역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문의: 방현순 권사 010-5514-1958

강경옥 총무 010-3412-7966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민수기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의 시점은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설하고 이제 막 행진할 때입니다. 출애굽한지 2년 즈음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출애굽한 지 두 달 15일째 되었던 시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이 시나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나산 이전에는 하나님이 참고 받아주셨습니다.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엄격해지셨습니다. 똑같은 불평이라도 시나산 율법을 받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한 이후부터는 율법에 근거해서 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이 주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거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출애굽해주시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고 보니 광야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도응답이 빠른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자가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기도응답이 더디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사람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기쁨과 사랑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도 받아줘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된 이후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베풀어주셨습니다. 철새인

메추라기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다시 북아시아로 올라갈 때 너무나 지쳐서 사람들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광야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건조한 사막지방에서 서식하는 일종의 곤충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굳어질 때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오병이어 기적처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먹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첫째, 날마다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의 영성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인해 게을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적의 위험은 노동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거두는 노동을 통해서 기적의 위험을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절제의 영성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양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한 오멜’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오멜이라는 것이 당시의 단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단위로 달아보니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았습니 다. 꼭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안식일을 지키며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영성을 가르쳐주셨습니다. 6일 동안 매일매일 거두다가 6일째에는 이를 치를 거두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날에도 썩지 않았습니 다. 이런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거두도록 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

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신 8:3).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가르쳐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경제문제를 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듯이 날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요 6:18-51).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구약의 만나를 사람들이 먹고 죽었지만,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깨닫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생이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생명이요, 양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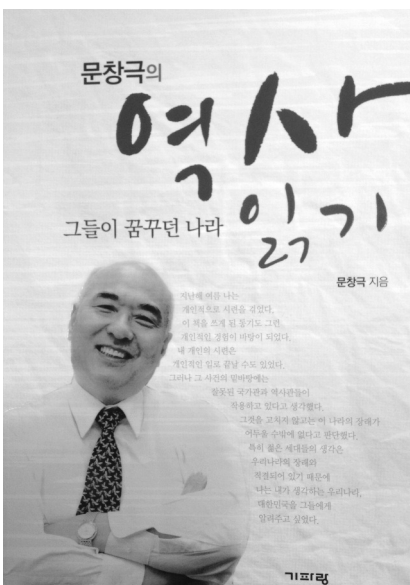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책

화제의 신간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문창국의 역사 읽기: 그들이 꿈꾸던 나라〉
문창국 저 | 기파랑 | 11,500원

“잘못된 국가관과 역사관을 고치지 않고는 이 나라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발인 것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행로(行路)가 적힌 책이 발간됐다. 문창국 장로가 ‘올바른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문창국의 역사 읽기: 그들이 꿈꾸던 나라〉를 펴냈다.

선인들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 속에 있다. 저자는 앞

서 이 세상을 산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썼다.

“나라의 운명이 험난했던 시절, 우리의 선각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배움으로서 그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책은 2부로 나뉘어 있다. 1부는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어둠(暗) 속에서’, 2부는 ‘광복, 건국과 근대화의 불빛(明) 속에서’이다. 당대의 역사와 시대상을 배경으로 송재(松齋) 서재필, 우남(雲南) 이승만, 안중근 의사(義士), 백범(白凡) 김구, 도산(島山) 안창호, 규암(圭巖) 김약연, 좌옹(佐翁) 윤치호, 그리고 혁명가 박정희의 삶을 조명했다. 역사의 밝음(明)과 어둠(暗)의 흔적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조명했다. ‘역사’와 ‘현재’의 접목에 관한 대응적인 진단을 내렸다. 역사를 계승하고 확대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또 저자는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고,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현재를 부끄럽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문창국 장로가 노래한 대한민국, 그 아름다운 노랫말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다.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들이 단단한 터를 만들어놓은 자랑스러운 나라, 청년들에게는 각자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취의 나라, 장년들에게는 각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나라, 노인들에게는 이 나라에서 일생을 살았을 것을 고맙게 여기는 감사의 나라, 바로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